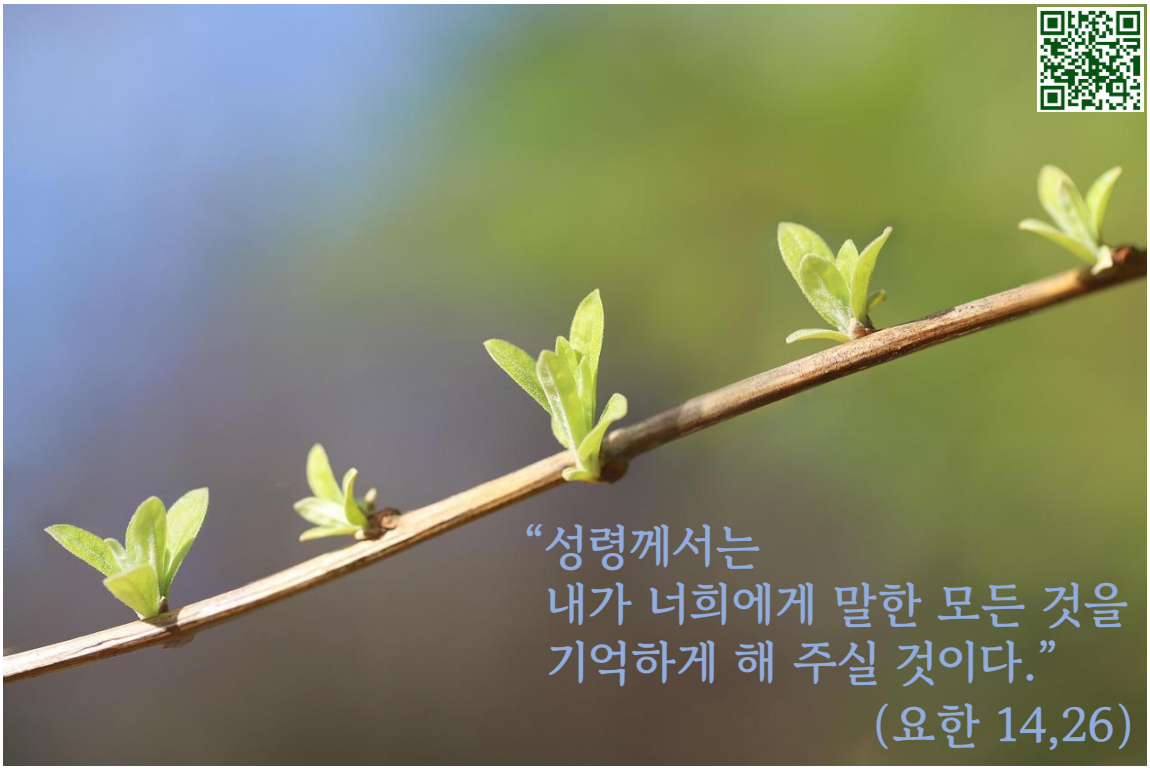
AKCCME 제 215호

2025년 5월 25일(다해)

아켐주보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부활 제6주일(청소년 주일)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 무 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 바 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르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 웨 이 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 타 르** 묵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부활 제6주일(청소년 주일)

오늘은 부활 제6주일이며 청소년 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이들 안에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기를 청합시다.

- **제1독서**
  사도 15,1-2.22-29

- **입당송** 이사 48,20 참조

- **화답송** 시편 67(66),2-3.5.6과 8(◎4 참조)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묵시 21,10-14.22-23

- **복음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 **복음**
  요한 14,23ㄴ-29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보시어,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세세 대대에 전하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통찰의 은총을 주시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잠재력을 지닌 청소년들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3. 청소년 주일을 맞아,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쁨이신 주님, 젊은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피시어, 그들이 세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 내며, 자신의 삶을 성실히 일구어 가게 하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저희 중동 한인 공동체의 모든 이를 보살펴 주시어, 그리스도를 본받고, 저마다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 **영성체송**
  요한 14,15-16 참조

[아켐] 공동체별 성모 성월, '성모의 밤' 행사

5월은 전례력 상 성모 성월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달인 5월에 교회는 하느님의 구원에 삶을 다해 협력하신 성모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기억하고 다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그리고 자주 성모님을 공경하고 그 모범에 따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은총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쿠웨이트 : 5 월 16 일 (금), 미사 중 함께
- 아부다비 : 5 월 17 일 (토), 12시 어린이 미사와 함께
- 두바이 : 5 월 25 일 (주일), 14시 미사 중 (미사 후 공동체 전체 식사 모임)
- 카이로(이집트) : 5 월 23 일 (금), 17시 30분 (행사 후 귀임 교우 환송 식사 모임)
- 카타르 : 5 월 27 일 (화), 본당 성모의 밤 행사 중 성모님께 헌화 및 묵주 기도

[아켐] 모든 선교사들과 장애 아동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기도

지난 5월 17일 토요일, 성모 성월을 맞이하여 특강을 통해 모로코 공동체의 '손은경 데레사 수녀님'께서 귀한 묵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의 삶과 그 자취를 따른 선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계심에 이를 감상하고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녀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녀님께 작은 감사의 표시로 아켐에서 특강비를 마련했으나 아켐 공동체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란다시며 봉헌하셨고, 아켐의 여러 교우들께 '세상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장애 아동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바티칸] 교황 레오 14세 즉위 미사

레오 14세 교황이 5월 18일 오전 10시(로마 현지 시간)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즉위 미사를 봉헌하며 제267대 교황직에 공식 취임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미사 중 강론에서 "한 사람의 형제로서 여러분의 신앙과 기쁨을 위한 종으로 다가가 우리가 하나로 일치되길 바라는 주님의 사랑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강론 말미에는 "가자지구와 미얀마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에 영구적인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하자"고도 당부하셨습니다.

[교회] 교황님 5월 기도 지향

5월: 노동 환경

노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저마다 성취감을 얻고 가정이 품위를 유지하며 인간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Congratulations

함께하며, 하나되며

중동한인 AKCCME가톨릭공동체

모습들

<쿠웨이트 공동체> 견진성사

'김덕문 유스티노'

'김세미 율리아'

'김유비 제노'

'김시연 미카엘라'

'윤지민 미카엘라'

'황사영 니콜라오'

견진을 축하드립니다~!!!

5 월 15 일 7:00 pm

<아부다비 공동체> 첫영성체 / 세례성사 / 견진성사

첫영성체:

'권윤우 암브로시오'

'권제이 마리나'

'권아윤 율리아나'

'권지오 루카'

세례 & 첫영성체:

'이성진 가우덴시오'

모두 축하드립니다~!!!

5 월 17 일 12:00 pm

'경지혜 모니카'

견진을 축하드립니다~!!!

5 월 20 일 7:00 pm

우리들의

<묵상과 나눔>

김영글 소화 데레사(아부다비 공동체)

< 성모성월 특강을 듣고 ... >

주일 미사를 다녀와서 첫영성체 기념떡을 배불리 먹고 낮잠을 잤다. 알람 소리에 깨어 기대감보다는 의무감에 성모성월 특강 줌 접속을 했다. 오후 4시 정각에 들어갔는데 12명의 참가자를 보고 '아이구야, 모로코에서 모셔온 수녀님인데 신자들이 너무 안 오셨네. 나라도 들어오기 잘했네.' 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다.

수녀복이 아닌 일상복을 입은 손은경 데레사 수녀님의 첫인상은 생경함이었다. 수녀님의 머리카락을 보게 되다니.. 햇볕에 그을린 듯한 건강한 피부 색깔, 똑 부러지지 않아 진심이 더 전달되는 어투, 맑은 눈동자와 순박한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끌렸다. 시작 기도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곡을 들려주셨다.

오늘 제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오나
주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마련하신 선함 외에
다른 것은 없음을 믿사오니
제 삶을 맡기나이다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계획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따르며
저의 온 삶을
저의 온 삶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 온전히 따르리라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데레사 수녀님의 모습이 꼭 예수님을 잉태하신 십 대 소녀 마리아와 같아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흘렀다.

모로코 가신 지 12년이 되셨다는 수녀님은 미카엘 신부님의 특강 제안에 마음속으로는 "No"를 외쳤지만 차마 거절할 수 없으셨단다. 그렇게 떠맡은 성모성월 특강을 준비하시며 성모님에 대한 묵상과 함께 본인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어서 결국 은총의 시간을 체험하셨다며 강의를 시작하셨다.
모로코에서는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선교는 금지되었기에 그곳에서 선교는 성모님의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다. 성모님의 방식이 무엇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를 넘어서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

많은 한국인에게 그렇듯 수녀님은 의미 없이 시간 죽이는 것이 참 힘들었다고 하셨다. 모로코에서 초대받은 집에 약속 시간에 맞춰 오후 1시쯤 가더라도 식사하기 전 한두 시간은 그냥 안부 묻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들을 이해하기 어려우셨다고.. 돌아가서 할 일도 많은데.. 겨우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 하시면 저녁도 먹고 가라고 붙잡는 그들이란다.

그러다 깨달으셨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그들의 초대에 응함은 시간 낭비가 아님을. 목적 없이 그 사람들 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선교임을. 함께 머무는 것이 그들 안의 주님의 현존을 바라보는 것임을.

내 안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목적 없는 만남을 싫어하고 친교를 위한 친교는 지양하는 나는 어쩌면 큰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가끔씩 내 삶의 한구석이 허전했으려나, 하는 생각에 미쳤다.

우리들의

<묵상과 나눔>

수녀님의 선교 생활 중 에피소드 또 하나.
모로코에서 유난히 많은 뇌 병변 환자들을 마주하는데 그들이 일반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게 적절치 않아 보였다. 하지만 수녀님의 위치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수녀님의 작은 수입을 포기하고 일을 하자니 걸리는 부분도 있어 아무것도 못하고 계셨다. 그러다 계속되는 마음속의 갈망에 용기를 내어 뇌성마비 환자를 위한 물리치료를 시작하셨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고 부족한 나머지가 채워지고 있다.

수녀님은 마리아의 순종적인 삶뿐 아니라 적극성도 말씀하셨다. 잉태하시고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행동력, 카나의 혼인 잔치에 술이 부족한 걸 눈치채시고 그냥 있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말씀을 건네시는 모습. 그러한 성모님의 모습을 닮으려 수녀님도 용기를 내셨다.

성모님의 엘리사벳 방문, 도메니코 기를란다요 作

살면서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된다. 허나 늘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것을 외면하며 그저 일상을 살아간다. 모르겠으면 남들 비슷하게 살아, 그렇게 이상을 꿈꾸면 삶이 피곤해져, 네가 정말 그걸 원해? 이런저런 핑계로 내 스스로를 막으며 편하게 사는 방법을 습관적으로 찾는 나를 마주한다. 허나 반복되는 내 마음속 깊은 울림은 하느님의 음성이 아니었을까?

카나의 혼인 잔치, 조토 디 본도네 作

뇌 병변 어린이들 얘기만으로도 눈물을 보이시는 수녀님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다시 용기를 내어 희망하는 것, 죽음 앞에서 놓지 않는 희망에 대해 얘기하셨다. 세상에서 부차적인 설명 없이 이해될 수 있는, 세상이 허락하는 수준의 희망만 나는 바라왔다. 아니 그래야만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 나는 희망한다.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어놓으신 성모님처럼, 나를 통해 온 세상을 향해 흐르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온전히 내가 쓰이기를..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마태 7,12)

2025년 '희년'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부활 삼종 기도

(주님 부활 대축일 ~ 성령 강림 대축일)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성모 성월 기도

마리아의 노래(Manificat)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선 . 생 . 님 . 궁 . 금 . 해 . 요 .

<18> 성모님이 나타나셨어요: 파티마

1917년 5월 13일 포르투갈 산골 마을 파티마 부근 풀밭에서 목동 세 명이 삼종기도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10살 루치아 그리고 사촌 남매인 9살 프란치스코와 7살 히야친타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자 쾌청한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비쳤습니다. 소나기가 몰아칠까 급히 양 떼를 몰고 돌아가려는데, 더 강한 빛이 또 번쩍거렸습니다. 놀라 걸음을 멈추니 작은 참나무 가지 위 찬란한 광채 가운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을 향해 자애롭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여인은 눈처럼 흰옷을 발만 보이도록 길게 덮은 채 두 손을 포갠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거룩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근심하는 빛이 보였습니다.
"너희에게 이제부터 6개월 동안 매달 13일 이 시간 여기로 오라고 말하러 왔다. 10월 13일에 내가 누구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 말하겠다." 여인은 이어 "자신을 봉헌하며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고통을 기꺼이 견디면서 매일 묵주 기도를 하라"고 말한 뒤 사라졌습니다.

목동들은 마을로 돌아가 사실을 전했지만, 부모도 본당 신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인인 성모 마리아와 약속한 대로 6월 13일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호기심에 따라간 이도 60명 정도였습니다. 성모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루치아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묵주 기도를 바치라"고 답하셨습니다. 또 신비가 끝난 다음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7월 13일 군중은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성모님은 "인류를 힘들게 한 지루한 전쟁(제1차 세계대전)을 빨리 끝내기 위해 묵주 기도를 바쳐라. 성모의 전달에 의해서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신 뒤 사라지셨습니다.

8월 13일에는 1만 8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정작 세 목동은 지방 행정관에게 체포·구금돼 가지 못했습니다. 행정관은 "성모님 발현은 조작된 거짓"이라는 자백을 받아내려 했지만 실패하고 3일 만에 아이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6일 뒤인 19일 목동들이 발리노스라는 다른 골짜기에 있을 때 성모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여라.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많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

루치아가 "성모님이 발현하신 참나무 주위에 사람들이 갖다놓은 돈과 물건은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자 "묵주 기도의 성모 축일 때와 성당 건축에 쓰도록 해라"라고 답하셨습니다.

9월 13일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구 부주교도 비밀리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송이 같은 꽃비가 내리면서 발현하신 성모님은 또 10월 13일 아기 예수님·요셉 성인과 함께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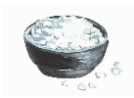
10월 13일 정말 태양 오른쪽에 성모님, 왼쪽에는 성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셨습니다. 두 분은 붉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어 고통의 성모와 성의를 든 가르멜 성모의 모습이 잇달아 나타났습니다. 성모님은 "나는 묵주 기도의 모후다. 하느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말고 묵주 기도를 하여라. 그분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티마의 기적은 세 어린이뿐 아니라 많은 군중이 6개월 동안 목격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각도로 엄중히 조사한 후에야 기적임을 확인해 발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10월 30일 포르투갈 리스본총대교구 주교좌 대성당에서 전국 모든 주교와 정부 요인이 참여한 가운데 온 세계와 러시아를 성모 마리아께 봉헌하는 장엄한 예식이 거행됐습니다.

루치아는 훗날 가르멜 수녀회에 입회했으며, 관할 주교 명령에 따라 성모 발현과 천사 발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가톨릭 평화 신문, <박모란 교리 교사의 교리, 궁금한 건 못 참지> 편집

소금 한 꼬집 

- 월간 생활성서 '소금 항아리' 에서

아켐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켐 기금은 아켐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 R A K 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GULF KOREAN TIMES 걸프 코리안 타임즈
- 중동 대표 한인 교민 신문
-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홍보 & 마케팅 기회 제공
- 외국 커뮤니티와의 협력, 유대 기회

정미숙 라파엘라 (광고 문의)
(+971) 50 461 3991 / : @gktmedia